



13일 오후 여자 자유형 100m 참가자이자 이번 대회 최고령 선수인 일본의 아마노 토시코(93)가 경기를 마친 뒤 환하게 웃고 있다.



자폐장애가 있는 이동현씨가 13일 오후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남자 자유형 100m에 참가해 질주하고 있다. 수영대회 조직위 제공

93세 최고령자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화제의 인물

아마노 토시코

금메달보다 값진 도전이 펼쳐졌다. 90세가 넘는 선수가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것이다. 바로 아마노 토시코(일본·여)다. 93세인 아마노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이번 대회 최고령자로 출전해 자신과의 싸움을 펼쳤다.

아마노는 경영 종목에 참가했다. 13일 여자 자유형 100m에 도전장을 내민 그에게 관객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출발부터 쉬워 보이지 않았다. 스텝에게 부축을 받으며 입장한 그는 2분 남짓이나 걸려 출발선에 섰다. 출발음이 울렸고 물속에 뛰어들자 관객들은 박수를 쏟아 냈다.

그러나 함께 출전한 칠레, 호주 선수들과는 초반부터 극명하게 차이가 벌어졌다. 아마노가

여자 자유형 100m 도전에 관중들 갈채 “수영은 활력소 100세까지 하고 파”

50m지점을 통과했을 때 이미 다른 선수들은 결승점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아마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느리지만 꾸준히 물살을 갈았다. 결승점까지 30m정도 남자 관객들은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중국 관객은 ‘짜요’를 외치며 격려하기도 했다. 많은 관중들의 응원 속에 무사히 결승점을 터치했고 전광판에는 4분 28초 06이 찍혔다.

아마노는 “이렇게 멋진 경기장에서 기분 좋다. 혼자 수영하게 돼 죄송하다”면서 “수영할 때 박수 소리를 들었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응원을 받아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는 9살부터 수영을 처음 시작했다. 어린이 노인 교실에서 수영을 가르친 경험이 있다. 30년 전부터는 마스터즈 대회에 꾸준히 도전장을

내밀었다. 아마노는 “물에 있는 것이 좋다. 육상 경기는 무리가 있지만 물속은 지장이 없다”면서 “수영은 전혀 피곤하지 않다. 일주일엔 2번 정도 수영을 꾸준히 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나이에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비결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좋은 줄만 알았던 그는 최근 사이가 틀어졌다는 소리에 안타까워했다.

아마노는 “교육을 잘하면 사이가 좋아지지 않겠나 싶다. 수영이라는 스포츠로 하나가 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끝으로 다음 대회에도 출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금 93세다. 다음 대회도 출전할 생각이다. 100세까지 경기에 출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아마노는 15일 자유형 50m와 18일 배영 50m에도 출전한다.

한경닷컴 기자 hkk42@srb.co.kr

자폐장애에 이동현 “최선 다해 만족합니다”

남자 자유형 100m 조 3위로 골인
 모 정순희씨 “당당히 겨뤘 기쁘다”



이동현(왼쪽)씨와 어머니. 수영대회 조직위 제공

“당당히 겨뤘 최선을 다했기에 만족합니다.” 자폐장애 1급 이동현(29)씨는 비장애인들과 겨뤘음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오히려 기운이 넘쳤다.

13일 오후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주 경기장에서 펼쳐진 남자 자유형 100m. 이씨는 같은 조 다른 6명의 선수와 나란히 출발대에 섰다.

이윽고 출발신호가 울리고 이씨는 합차게 물속으로 뛰어 들었다. 레이스 초반 다른 2명의 선수와 선두권을 형성하며 합차게 질주했다.

50m를 30초27에 끊은 이씨는 역주 끝에 1분 7초62의 기록으로 조에서 3위로 결승패드를 찍었다.

관중석에선 이씨의 아름다운 도전을 환호와 박수로 격려했다.

뒤에서 숨죽이며 이씨의 역경을 지켜보던 어머니 정순희(58)씨는 만감이 교차했다. 정씨는 “동현이의 기록에는 못 미쳤지만 비장애인들과 당당히 겨뤘 최선을 다했기에 오늘 경기에 만족한다”면서 “동현이께 ‘잘했다’고 말 해줬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기자 hkk42@srb.co.kr

“광주, 너무 더워요”

더위 피하는 방법 다양각색
 선수들 상의 탈의한 채 이동

수영대회를 위해 방문한 선수들이 광주의 무더위를 제대로 맞고 있다.

33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에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대회에 참가한 각국 선수단은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다양각색의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경영과 다이빙이 벌어지고 있는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는 상의를 탈의하거나 수영복을 입고 활보하는 선수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무더위만큼 최대한 옷을 열어 더위를 피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선수들은 부채와 타월, 모자, 손선풍기 등 저마다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더위를 피하고 있다.

가장 큰 인기는 얼음물이다. 광산구가 매일 2천 여개씩 무료로 나눠주는 얼음물은 선수들이 바깥으로 나오며 가장 먼저 챙기는 물품이다.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한 장소는 선수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가 됐다. 쿨링존과 쿨링포그는 버스를 기다리는 선수들이나 대회 관계자가 몰려들어 북적이고 있다.



관객들이 얼음물을 전달받고 있다.

수영대회 조직위 제공

특히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에어쿨러 앞은 최고 명당으로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수들은 에어컨으로 시원한 경기장 관중석이나 경기장 로브 등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미국 트레비스 커밍스 선수는 “날이 더워 시원하게 상의를 벗고 다닌다”며 “그래도 경기장 곳곳에 시원한 곳이 준비돼 있고 얼음물도 있어서 크게 힘들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기자 hkk42@srb.co.kr

“우리나라도 수영 동호회 많아요”

광주대회 100개팀 1천명 출전
 오픈워터·수구 등 종목도 다양
 “외국 선수들과 교류 기회 기뻐”

84개국 6천여명이 참가한 ‘마스터즈수영대회’에 한국도 100여개 동호회, 1천여명이 참가하면서 한국 수영 동호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나와있지 않지만 생활체육 가운데서는 배드민턴 다음으로 수영이 동호회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번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에 아티스틱수영, 오픈워터수영, 다이빙, 수구 등 일반 경영 외의 팀들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번 대회에는 경영 동호회가 76개로 8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오픈워터수영이 7개 동호회에 50여명, 다이빙 동호회가 5개 팀에 40여명, 수구가 3개 동호회에 40여명, 아티스틱수영 동호회가 3개 팀에 9명이 참가했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수영동호인들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 경영은 회원수가 4만7천여 명이나 되는 동호회가 있는 반면 2-3명에 불과한 동호회도 있다.

이번 대회에 156명이 출전한 수영동호회 ‘SWIMON’의 박정빈(일산) 회장은 “회원들이

마스터즈대회가 외국에서 열려 나가고 싶어도 못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광주에서 개최돼 무척 반갑고 참가 자체가 영광이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동호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50m 풀 등 경기장 시설이 부족해 수영을 하려면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고, FINA의 규정과 물에 비해 우리 수영 현실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아쉬워했다.

서울 오픈워터수영 GPG팀 회원 김현철(서울)씨는 “파도도 잔잔하고 주변 환경이 너무 아름다운 여수 바다에서 경기를 치러 행복했다”며 “매년 여수 바다에서 정기적으로 오픈워터수영 대회가 개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자 수구 경기에 참가한 서울 OLPAC Water polo 팀의 코치인 이준희(서울)씨도 “실력차가 많이 나지만 외국 선수들과 그나리에 가서 다시 경기를 약속하는 등 많은 친구들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수영도시 광주, 수영강국 대한민국의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레저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영대회를 계기로 엘리트 선수 육성, 수영 지도자 양성, 수영의 대중화, 생존수영 확대를 위해 이번 대회의 유산으로 한국수영진흥센터(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경닷컴 기자 hkk42@srb.co.kr